

IT·AI 결합된 새로운 물류환경 등장에...

유통업계 "물류비 부담 해소 절실"

제주상의 '도내 유통업계 환경 실태 설문조사' 결과 유통판매처 확대 부진은 물류비 등 경제적 요인 46.7%

최근 IT(정보기술)와 AI(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새로운 물류환경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유통업계는 물류비로 인한 부담과 여건 개선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상공회의소는 도내 81개 유통 관련 기업체(제조, 도·소매 유통, 농·수·축산업)를 대상으로 '제주유통업계 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제주유통업계의 환경은 여전히 물류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밝혔다.

유통판매처 확대에 있어 해당 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결과, '물류비용의 부담(26.7%)', '유통(전문)인력확보(23.3%)', '유통·판매 수수료 부담(20.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제품 포장 디자인(8.3%)', '제품의 기획 능력(7.5%)', '위생 시설(haccp)(5.0%)', '제품의 생산능력(5.0%)' 순으로 응답해 여전히 다른 지방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로 인한 부담이 많고, 향후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케팅 활동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묻는 결과 '마케팅비용(홍보, 판촉 등)(27.3%)'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체간 파

다한 경쟁(21.8%)', '마케팅 전문인력부족(16.4%)', '유통망 구축비용(16.4%)', '소비자 대기업제품 선호(10.9%)', '시장 정보수집 한계(6.4%)' 순으로 응답해 비교적 소규모 구성의 제주기업들은 유통 분야에 대한 인프라와 고급인력의 부재로 인한 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산품 유통환경에 대한 기업 인식과 관련 '보통(47.8%)'이라고 체감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대체로 나쁨(29.9%)', '대체로 좋음(13.4%)', '매우 나쁨(9.0%)'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기업의 제주특산품의 유통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38.9%)이 긍정적인 인식(13.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산품 유통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상훈기자 sycho@ihalla.com



제주 가족문화축제 26일 제주도 담해변공원에서 열린 2019 가족문화축제 행사장.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제주도와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풍덩이 플리마켓, 가족 사생대회, 축하공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연합뉴스

중기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내달 7일까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를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55세)에게 제주도과 기업, 근로자가 마련한 공동적립금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문의 754-5163·5159. 이상민기자

Table with 2 columns: 당첨번호, 순위. Rows include 2 등 보너스순차, 1 등, 2 등, 3 등, 4 등, 5 등.

로또판매점 2371곳 늘려... 차상위계층도 허용

온라인복권(로또)을 살 수 있는 판매점이 2300개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와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총 2371개이다. 1·2차년도 각 30%(연 711개씩), 3차년도 40%(949개)이다.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으로(70%)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참여(30%)를 허용기로 했다. 기재부는 6월 내 모집공고를 내고 전산 추정 방식을 통해 판매자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로또 판매점은 제주도 50곳과 서귀포시 14곳 등 64개소이며 40개소가 폐점됐다. 조상훈기자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Table with 3 columns: 회사명, 대표, 창립일. Lists companies like 대동상사, 중문농협, 구좌농협, 한경농협, (주)청룡수산.

"완벽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대동상사=27일 창립 29주년을 맞는 대동상사(대표 이점식·사진)는 서귀포시 비석거리에 위치해 타이어·배터리 판매,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로켓트빔테리와 한국타이어 대리점을 맡아 다양한 양질의 제품을 신속·정확하게 공급하는 한편 경쟁비를 포함한 차량 정비·수리 서비스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762-4944.

"도약 2020 일류 농협" 위해 노력"

▶중문농협=30일 창립 49주년 맞는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사진)은 '도약 2020 일류 중문농협'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 농촌,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존경받는 농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 전담 관리제 정착을 통해 협동조합 미대상을 실현하고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고객감동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조합장은 "농가 소득 증대,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 수취를 위해 농협의 역할을 다하고, 조합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일류 농협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738-4170.

"농업인 삶의 질·소득 향상에 힘쓸"

▶구좌농협=31일 창립 48주년을 맞는 구좌농협(조합장 윤 민·사진)은 농산물 소비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불안정, 늘어나는 농가부채의 악순환으로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주요 소득원인 월동채소류의 수급 안정과 원활한 유통처리를 통해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민 조합장은 "현장 영농지도 인력을 확대 운용해 영농정보를 전달하고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780-1132.

"조합원 행복한 선진농협 구현"

▶한경농협=31일 창립 48주년을 맞는 한경농협(조합장 김근진·사진)은 농업인 조합원이 행복한 선진 농협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해 가장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근진 조합장은 "과수유통센터를 활성화해 환경감굴의 명성과 브랜드화에 총력을 다하고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등 농업인 편의를 고려한 사업과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 773-1551.

"제주 수산물 전국에 신선하게 공급"

▶(주)청룡수산=31일 창립 26주년을 맞는 (주)청룡수산(대표 문영섭·사진)은 도내 5개 수협에 중도대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가장 신선한 수산물만을 구입해 대형마트와 6개 홈쇼핑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의 직거래하고 있다. 또 우수한 제주산 수산물을 미주,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문영섭 대표는 "HACCP 시스템을 갖추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가공공정을 구축해 2018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보존과 생산성, 고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733-311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중소기업 절반 이상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55.6% 유통발전법 개정 찬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500곳과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6%가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방향의 유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체의 45.0%가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영업 제한'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 점포 건축 단계 이전 출점 여부 결정'(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과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의 순이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변 중소기업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48.9%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약재감당의 어려움'은 24.8%로 뒤를 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체의 45.0%가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영업 제한'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 점포 건축 단계 이전 출점 여부 결정'(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과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Education advertisement for '전액무료교육' and '영어초급 과정' with details on enrollment,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eju Jewon College.

Advertisement for '태양광' (solar) services by '나눔에너지' (Nanoo Energy), including '태양광 "누가" 시공 하세요?'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장전향토지 발간자료 수집안내' (collection of historical site materials), including '대상자료', '접수기간', and '연락처'.

Advertisement for '선자연' (Sun Nature) architecture, featuring '친환경 전통건축' and '시공' (construction) services.